

趙仁元씨를 찾아서 — 大邱 七星食品

**두채업으로만 30년 강산이 3번이나 변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한 콩나물의 독특한 재배나 경영으로
항상 남보다 앞서고 경쟁에서는 양보할 수 있는
아량을 갖게까지는...**

대구 중심가에서 911번 지방도를 따라 승용차로 청도 쪽으로 대덕산(대구앞산) 계곡을 지나 약 20분 정도 달리다 보면 곧 끊어질듯한 계곡이 넓게 트이면서 다다른 지점, 바로 경북 달성군 가창면 삼산동 805번지에 위치한 趙仁元씨의 콩나물 공장이다.

대구에서 20km지점에 위치한 이곳은 번잡한 도심을 떠났다는 관념보다도 그저 한적한 산골마을에 온듯한 느낌을 준다. 동네 앞 길로 간간히 지나다니는 자동차나 시외버스의 승객숫자가 말해 주듯이 사람의 발길이 뜸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어찌저 주위 산에 나무들도 한결 푸르르고 개울물도 맑은것 같으며 공기도 훨씬 신선한 느낌이 든다.

대구에서 이곳까지 오는동안 냉천유원지를 비롯하여 대구 시민들이 여름철 휴식처를 즐겨찾

는 계곡들이 있고 곳곳에 송어 양식장들이 있는것을 보면 이지역이 물과 공기가 맑음 때문이 아닐까하는 추측을 뒷받침 하기에 충분하다.

조인원씨가 이곳에 콩나물 공장에 안주한 것도 바로 이러한 조건 때문인 것이다.

두채업의 성공 여부의 첫번째 조건으로 양질의 지하수를 다량으로 확보하여야 함은 그 누구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부수적인 요건으로 맑고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조씨의 콩나물공장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커다란 환풍기가 인상적이다.

“식물도 동물과같이 숨을 쉽니다. 콩나물이 성장과정에서 깨끗한물이 주성분으로들 알지만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공급시켜줘야 합니다. 성장과정에서 발산되는 열과 가스를 제거하고 호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콩나물이 별탈없이 잘 자랍니다.”

자신은 이러한 재배 방법의 도입으로 무공해 콩나물을 기르고 있어 주로 관공서나 대구근교의 기업체에 납품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 한다.

까다로운 납품 심사과정에서 위생 실무자나 영양사등을 자신의 공장으로 초빙, 시설과 재배 공정등을 견학시키면 대부분 무공해로 콩나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즉석에서 적격업체로 승락하여 납품이 결정되기도 한다.

조씨가 두채업을 시작한 것은 30여년전, 취업을 목적으로 고향을 떠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두부제조업과 콩나물

재배를 동시에 하였으나 너무 힘들어서 콩나물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27살이 되던해에 취업을 목적으로 고향을 떠나 대구로 와서 처음에는 두부제조업과 콩나물 재배를 동시에 하였으나 힘이 너무 많이들고 두종류를 한꺼번에 하다보니 한가지도 제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가 객지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자 갖은 고생을 하면서 그나마 고향에 있을때 터득한 농사기술(?)에 의해 콩나물로 정착을 하기 까지에는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한다.

그러나 두채업으로 어느정도 기반을 굳히고 나뉘대로 사업에 자신을 갖었던 75년도경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고자 운수업에 손을 대어 보았으나 1년여만에 실패를 하고 다시 두채업으로 되돌아 온후 콩나물에만 전념하여야 하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역시 한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은 그때 실감했습니다.”

그는 그후 두채업에만 전념한 결과 70년대말 중동전설봄이 한창일때 매년 40~50ToN의 콩나

물을 약 5년에 걸쳐 수출하였던 경험을 쌓게 되었고, 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콩나물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제는 콩나물에는 자신을 갖게 되었고 그간의 기반을 근간으로 판로도 안정되어 있어 신규업자의 난립이나 업자간의 출혈경쟁에도 어느정도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좁은 시장구조에 업자들간의 출혈경쟁까지 겹친다면 결국 손해보는 쪽은 우리 두채업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될 수 있으면 다



른 업자와의 경쟁을 피해 항상 새로운 분야를 개척 하다보니, 그가 출하하는 대부분의 콩나물을 관공서나 일반기업체에 납품하고 까다로운 수출에 까지 도전하게 되었다. 아직은 약간량이나마 시장에 출하 하고는 있지만 타업자와의 경합이 예상되면 양보하는 아량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두채업에서의 자신의 확고한 위치와 일반 두채업자들은 미처 구상하고있지 못한 분야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그의 선견지명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는 이곳 가창의 400여명의 대지위에 2개동의 공장(전평100여평)을 2년전인 87년도에 신축하여 하루4~5가마의 콩으

로 콩나물을 재배하고 있고 이곳 말고도 두채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던 대구 칠성동의 100여평의 공장에서도 하루 녹두2~3가마로 숙주나물을 재배하고 있다. 수질오염에 의하여 지하수의 질이 날로 저하되고 있지만 다행히 대구 칠성동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오염되지 않고 아직은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고 있지만 두곳의 공장을 경영하다 보니 관리 차원이나 운영비등의 이중 부담이되어 불가피하게 가창공장으로 합칠 계획을 하고있다. 그래서 가창공장을 신축당시 칠성동공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공터도 200여평 남겨놓고 지하수 펌프도 대형으로 설치 하였다 한다.

그러나 재배시설의 자동화는 콩나물에 물을 살포하는 과정만을 기계화 했을뿐 거의 인력에 의하는 불편함을 겪고있다.

“두채업이 현재에는 타업계에 비해 낙후돼 있어 하루속히 경영의 과학화가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재배 공정의 기계화 내지는 자동화가 요구되며 그 이후에 재배 기술의 향상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서 우리 두채업계는 자연히 영세성을 벗어날 수 있을것이라고 하고, 시설의 자동화는 현재 두채 업계의 실정으로 보아 기계의 설치비가 고가임으로 영세한 업자들이 부담하기에는 무리함을 지적하고,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도와주고, 자동기계의 제도원가를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기계의 다량생산은 다량수요에서 기인이 됨으로 두채업을 영위하는 전 업자가 시설의 자동화 의지가 우선 있어야 할것”

이라고 전체 업자에게 촉구하기도 한다.

그는 출하하는 콩나물은 주로 관공서나 기업체에 납품하기 때문에 부득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매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두채업의 특성상 세무장부의 기장이 불가한 관계로 매년 인정과제로 과표액을 결정하고 있으나, 매출액은 한정되어



30여년간 두채업에 종사한 그는 이제는 생존의 차원에서 벗어나 경영 개선과 콩나물재배기술 향상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와의 대화 과정에서 알 수 있을 것 같다.

있는 상태에서 과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세무행정이 불합리 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더구나 업자간의 덤핑, 투매행위에 의하여 날로 이윤이 저하되고 간혹 일어나는 농약사건에 의한 소비위축과 콩나물을 다량 폐기처분 할때도 있으며, 대부분대구지역 두채업자들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료콩을 공급받고자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세무당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하루속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 세무행정뿐만 아니라 행정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콩나물의 법적 위치를 확고히 하여 안심하고 두채업에 종사함은 물론, 일반 소비대중들에게 잘못된 인식돼 있는 콩나물에 대한 오명도 씻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작년 12월 대구지역에서도 일선 행정관청에서 일체히 콩나물을 수거하여 검사결과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지만 바로 이러한 행정부재상태에서 콩나물의 수거, 검사가 부당하게 자행된다는 것은 두채업자를 경시하는 처사이고 직권남용일것이라고 말하며, 그이전에 콩나물의 수거·검사과정에서만 편리하게 「식품위생법」의 조항을 준용 한다면 당연히 콩나물을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으로 규정하여 두채업을 동법에 의하여 허가 사항으로 정하던지, 아니면 다른 채소와 같이 콩나물에도 인체에 해가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농



약허용기준치 만이라도 설정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을 하고 그러한다면

“두채업자가 안심하고 콩나물 재배에 전력하여 국민들은 양질의 콩나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좁은 국내 시장을 탈피하여 외화 획득의 전략 종목으로 개발할 수 있을것”

이라고 하고,

일본만해도 콩나물의 재배 기술이 매우 발전하여 전세계에 콩나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더구나 두채업자들이 개인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에서 원료콩을 수입하고 있어 콩나물의 국제시장에서 품질이나 가격에 있어서도 저히 경쟁 대상이 없되며, 잘못하면 국내 시장도 이들에게 잠식당할 우려가 있음을 상기하며, 이러한 것을 우리정부가 하루속

히 감지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칙론을 펴기도 한다.

두채업에만 30여년!

강산이 세번이나 변할때까지 외길로 걸어온 그의 콩나물 인생은 짧은 주름살이 이를 증명하기도 하지만, 콩나물을 재배하여 시장에 출하한다는 생존의 차원을 벗어나 두채업의 경영개선과 콩나물 재배기술의 향상에 꾸준히 노력하여 왔음을 그와의 대화과정에서 여실히 증명할 수 있을것 같았다. ♣